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4일(금) 총 7매	
담당 부서	수질환경과	담 당 자	• 수계총량팀장 이석동 ☎440-3601 • 담당자 임철순 ☎440-36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한강하구 포럼, 한강하구 통합관리 협력방안 논의
- 제7회 인천 한강하구 포럼 열려, 한강하구 중요성과 통합관리 필요성 공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4일 인천 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협력 및 발전 방안’ 주제로, 시민, 전문가, 교수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포럼)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인천 한강하구 포럼’은 한강유역의 통합 물관리 및 한강하구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효율적인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물 관리 선도도시인 인천시가 2017년부터 매해 주도적으로 개최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상·하류 협력사업 및 방안’을 시작으로, 정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는 ‘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의 설립 필요

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해 한강하구의 중요성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주헌 중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 전문가,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강하구의 중요성 및 통합관리 필요성과 정책 제시 ▲(가칭)한강하구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설립 ▲한강유역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한강 하구 인식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상·하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보전과 통합관리, 구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제도방안과 법률제안 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활동가, 전문가의 협력과 실천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정보와 의견공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이미지>

